

2008 새해설계 ②

포천문화원 원장 이만구

시민의 삶의 질 높이는 문화학교 운영에 최선 문화발전에 대한 애정으로 관심과 조언 부탁

“문화와 예술은 인류의 지성이 이룩한 최고의 가치이며 가장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따라서 포천 문화원은 이렇듯 아름다운 문화의 꽃이 우리 지역에 그 열매를 탐스럽게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 지역 나름대로 전통문화를 꽃피워 나가는 정신문화 개발 운동에 더욱 힘써 나아가야 할 것이며 특히 충청도 선비의 고장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는 이러한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 이를 더욱 계승 선양하는 물론 이러한 전통 문화의 바탕 위에 현대 문화를 접목시킴으로써 특색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 확립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기초와 바탕 위에 2008년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 사업들을 발굴하고 보다 알차고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포천문화원 이만구(사진) 문화원장이 밝힌 2008년 새해 포부다. 포천문화원은 2008년도 주요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 ▶22회 반월문화회 개최 ▶전국한시백일장 개최 ▶전국취미대회 개최 ▶항토사 연구사업 지속 추진 ▶학술 연구 발표회 개최 ▶제3회 가족 낭송경연대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에

설계 참가 ▶청소년 문화유적답사 실시 ▶회원 관의 문화유적답사 ▶문화유적답사 시티투어 실시 ▶포천 문화사랑 발간 ▶포천문화제 15호 발간 ▶문화인의 밤 행사 개최 ▶좋은책 읽기 운동 ▶항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 ▶교류 협력사업 추진 ▶1사1문화제 결연사업 추진 ▶찾아가는 포천문화원 문화예술단(가칭) 운영 등이다.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혼신의 역점사업으로 1년에 960명을 배출하는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서비스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한글교실을 열어 한글을 배우는 분에게서 편지를 받아 보니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문화학교 운영에 있어서 선비의 고장에 적합한 고전 강독반을 개설하고 일반 시민들이 여가선용과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기 위한 과목을 개설하고 1년에 1회 작품발표회를 개최해 공연과 전시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문화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운을 주신 분에 대해 이 원장은 “자문위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특히 강수동 자문위원과 서기원 자문위원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원 사업 활성화 비결

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마음과 일을 취미 삼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퇴근 후에도 집에서 검토하고 쓰고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포천문화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당부할 사항에 대해 이 원장은 “경제적 기반시설은 물론 그 지역의 문화수준이 높아야 잘 살고 선망 받는 지역”이라며 “문화발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문화원에 조언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포천신문에 거는 기대는 전체적인 지면에 비해 문화예술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힘이 없는 것이지만 크고 많이 게재하여 주시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문화원은 특수시책으로 좋은 책 읽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와 지식향양의 기회를 제공하며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연중 실시하며 6개월에 1회 초·중·고등부, 일반부로 구분하여 독후감 모집 및 시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항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를 청소년들에게 우리고장의 항토사 및 문화유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



케 함으로써 내 고장에 대한 애정고취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관내 문화 유적 및 역사적 인물에 관한 내용으로 경시대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 선진문화원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발전방안과 시책을 발굴 개선함으로써 포천문화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는 9월중에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천지역에는 많은 문화재가 다양한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인근 기업과 연결 관리토록 하여 항토 문화유적의 전승·보존과 지역주민의 애郷심을 높이기 위해 1사1문화제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포천문화원 문화예술단(가칭)도 운영키로 했다.

문화예술단(가칭)은 문화학교에서 익힌 문화예술 기량을 소의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및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한 정신문화 정착과 찾아가는 종합 예술 자원봉사를 통한 봉사활동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90

조정과 저자를 숙연하게 한 대사헌 최숙생

최숙생(崔淑生, 1457~1520)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자진(子眞), 호는 고재(龜齋)이다. 성종 23년(1492)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찬성에 이르렀다. 중종14년(1519)에 벼슬과 품계를 빼앗기고 관원의 명부에서 삭제되었으며 이듬해에 죽었다.

최숙생이 사헌부 대사헌이었을 적에 서울 사대문 안의 무당들을 모두 내쫓아 동활인서(東活人署:도성의 의뢰기관)와 서활인서(西活人署:도성의 의뢰기관)에 모이도록 명령을 내리고, 성남(城南)에 있는 비구들이 사는 건물을 철거시켰으며, 불상(佛像)을 헐어버리고 종들이 서울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대부들의 집 가운데 규정을 위반하고 멋대로 지은 칸살은 철저히 수색하여 연결 관리토록 하여 항토 문화유적의 전승·보존과 지역주민의 애郷심을 높이기 위해 1사1문화제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포천문화원 문화예술단(가칭)도 운영키로 했다.

미국인들에게 보여주어 전쟁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1사1문화제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포천문화원 문화예술단(가칭)도 운영키로 했다.

문화예술단(가칭)은 문화학교에서 익힌 문화예술 기량을 소의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및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한 정신문화 정착과 찾아가는 종합 예술 자원봉사를 통한 봉사활동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리효종 포천한자사 대표

그에게 배웠다. 이세정은 성품이 치밀하지 못하고 산만하며 우물하고 우직하여 재간이 없었으나, 같은 시기에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힘을 모아 조정에 추천하여 청양현감(靑陽縣監)에 임명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최숙생이 새로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자, 이세정의 여러 제자들이 남대문 밖까지 나와 전송하면서 청양현감에 대하여 넉넉히 시를 지어 축하하였다.

“우리 스승에게는 학문과 깨끗한 지조가 없으니 조심스럽게 대하고 고과(考課)를 함부로 꾸아내리지 마시오.”

“그렇게 하겠소.”

최숙생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떠났다. 그러나 최숙생이 충청도 감영에 도착하자마자 청양현감을 근무평정을 풀지로 매겨 파직시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뒤 최숙생이 갈려서 중앙으로 돌아오자 김정국 등 세 사람이 최숙생을 찾아가 따졌다.

“충청도 한 도 안에 교활한 관리로 주님을 해롭게 하는 자가 그렇게도 없어서 하필이면 조제 징수 실적이 부진한 자의 고과에 팔자를 매겼단 말이오. 당신의 성직 고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오?”

“다른 고을 수령의 경우는 비록 교활하다 하더라도 도적은 제 하나 뿐이 불과하므로 주민들이 오히려 견뎌낼 수 있소. 청양현감 자신은 비록 깨끗하지만 청양현감의 큰 도적인 고을의 여섯 아전이 그 밑에 있으니 주민들이 견딜 수가 없소. 그리고 또 뱃속이 텅빈 사람이 어떻게 한 고을을 다스리겠소?”

“스승님의 뱃속에는 육경(六經)이 꽂차 있는데 어찌하여 텅 비었소요?”

김정국이 묻자 최숙생이 대답하였다.

“당신들이 스승 뱃속의 육경을 모두 가져다 나누어 자신들의 창자와 뱃속에다 가득 채워 가지고 그것으로 과거에 합격하고 출세를 하였으니, 당신 스승의 배가 아무리 크더라도 거기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었다.

음악 이야기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미국의 우월주의와 애국주의적인 뮤지컬영화들

1940년대 할리우드는 대중적인 뮤지컬뿐만 아니라 실험적이며 예술적인 뮤지컬들도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뮤지컬 영화 제작자 아서 프리드(Arthur Freed, 1894~1973)가 등장하며 할리우드 뮤지컬의 한 주류를 형성했다. 물론 줄거리만으로 볼 때는 신파적이고 지극히 미국우월주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스타일면에서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뮤지컬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양키 듀얼 댄디(Yankee Doodle Dandy, 워너 브라더스, 1942)〉, 〈포미앤마이갈(For Me and My Gal, 1942, MGM)〉 그리고 〈디스 이즈 디 아미(This is the Army, 1943, 워너 브라더스)〉는 상업적으로나 작품성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재능있고 참신한 뮤

지컬 배우를 등장시켰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 뮤지컬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조지 M. 코한(George M. Cohan)의 일대기를 담은 〈양키 듀얼 댄디〉에서 주인공 코한 역을 연기한 제임스 캐그니(James Cagney)는 1942년 아카데미상에서 뛰어난 브로드웨이와 다르게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졌고 영화사들은 앞을 다투어 새로운 뮤지컬을 제작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호황을 누렸던 시기에 걸맞게 수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전쟁을 겨냥한 작품들이 만들어져 흥미를 끌었다. 이들 뮤지컬 영화들은 목적극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만 작품성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아 1940년대 초중반에 뮤지컬 영화의 한 주류를 형성했다. 물론 줄거리만으로 볼 때는 신파적이고 지극히 미국우월주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스타일면에서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뮤지컬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양키 듀얼 댄디(Yankee Doodle Dandy, 워너 브라더스, 1942)〉, 〈포미앤마이갈(For Me and My Gal, 1942, MGM)〉 그리고 〈디스 이즈 디 아미(This is the Army, 1943, 워너 브라더스)〉는 상업적으로나 작품성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재능있고 참신한 뮤

지컬 배우를 등장시켰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 뮤지컬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조지 M. 코한(George M. Cohan)의 일대기를 담은 〈양키 듀얼 댄디〉에서 주인공 코한 역을 연기한 제임스 캐그니(James Cagney)는 1942년 아카데미상에서 뛰어난 브로드웨이와 다르게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졌고 영화사들은 앞을 다투어 새로운 뮤지컬을 제작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호황을 누렸던 시기에 걸맞게 수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전쟁을 겨냥한 작품들이 만들어져 흥미를 끌었다. 이들 뮤지컬 영화들은 목적극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만 작품성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아 1940년대 초중반에 뮤지컬 영화의 한 주류를 형성했다. 물론 줄거리만으로 볼 때는 신파적이고 지극히 미국우월주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스타일면에서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뮤지컬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양키 듀얼 댄디(Yankee Doodle Dandy, 워너 브라더스, 1942)〉, 〈포미앤마이갈(For Me and My Gal, 1942, MGM)〉 그리고 〈디스 이즈 디 아미(This is the Army, 1943, 워너 브라더스)〉는 상업적으로나 작품성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재능있고 참신한 뮤

이미 앞에서 설명한 어빙 벌린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영화화이다. 전쟁 중에 병사들을 위해서 위문공연단을 결성하고 수많은 전장터를 오가며 공연했던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을 좀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보여주어 전쟁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1사1문화제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포천문화원 문화예술단(가칭)도 운영키로 했다.

문화예술단(가칭)은 문화학교에서 익힌 문화예술 기량을 소의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및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한 정신문화 정착과 찾아가는 종합 예술 자원봉사를 통한 봉사활동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예/술/칼/럼

### 품(品)과 품(稟)

사람들은 때때로 예술의 품(品)을 열심히 이해하여 감상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issue)에서 변질되어 과장된 놀이감이나 스캔들(scandal)에 더 관심과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예술이 포용하는 미적 다양성 내지는 선한 허구성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은 손길로 입에 떠 넣는 것이 아니며, 정보의 틀판에서 튀어 쫓는 일도 아니다. 예술은 인간의 지성과 지식으로 정복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생명의 사자나무이자 사색의 고지(高地)인 것이다. 예술은 언어가 존재하는 한 사람의 품성(秉性)으로 가꾸어질 영원한 정신이며 신화일 것이다.

그 예술의 품(品)이라 함은 인간의 허황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쫓고 까불러 대는 변명과 궤변의 술수가 아니라, 상상력의 공간속에서 부화되는 생명의 찬

가인 것이다. 마치 새들이 동지를 틀어 살아감에 있어서 벌레를 잡고, 햇볕과 달빛으로 몸을 반추하며 높은 하늘을 따먹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사람의 예술은 꽃빛과 꽃물로 늘 삶의 질을 높여준다. 그 모든 예술의 품(品)은 인간의 갈라 마늘과 밭에 아니 메마른 실과 마늘에 단비이며 꽃인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예술은 인간적 관계성을 주어진 매체를 간직하여 사람의 궁극적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술이 감당해야할 위대한 가치며 숙제이기도 하다.

또 그 예술의 품(品)은 사람의 산술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깊고 오묘한 우물이다.

그러므로 예술의 품(品)과 예술인의 품(稟)은 영원한 반역다. 곧 예술인의 품(稟)은 어떤 의미로든 사람의 삶 속에 그물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 나서는 부지

런한 슬래여야 한다.

또한 그 예술인의 품(稟)은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따져 묻는 인간에 대한 끈질긴 탐색이어야 하며, 정치적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 하거나 누리려 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사회적 썩은 마당에 낫과 밭자루를 들고 아름다운 모습과 모양으로 서야만 한다. 사람간의 건강한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희망의 나무를 다져야 한다. 더 나아가 예술인은 인간의 유토피아를 향해 힘든 수레를 끌어야만 한다.

그래서 예술인은 사람의 집과 하늘의 사랑을 함께 실어 나르는 고독한 심부름꾼이다.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 주간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25)

### 동해(달집 태우기)

「달집 태우기」는 매월 정월 열셋째 날 저녁, 달이 뜰 무렵 하는 데「동해」라고도 한다. 이는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지내는 「대동(大同)놀이」의 기능 외에도 「대동제(大同祭)」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에 따라서는 9월 초, 3월초(중양절:重陽節)(삼짇날)의 「산신제(山神祭)」를 따로 지내는 곳이 많아 「달집 태우기」는 놀이의 성격과 마을의 「대동 단결(大同團結)」과 「향민 협동 친화(協同親和)」의 성격을 함께 지닌 마을 행사로 요즈음 「단합 대회」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햇불켜기」라고도 부르는 「대동 동해」는 개인의 기원을 드

리는데 달에 대한 「기원제(祈願祭)」의 의미를 함께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또, 「집단 놀이」 「민간 신앙」 「종교적인 의례 행위」 등 복합적인 기능과 같은 마을 「집성촌(集姓村)」의 혈족(血族)의 단결과 번영을 기구하는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 소재가 되고 사진작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 까지 행해지는 제례 행사는 종헌관의 헌주 의례가 끝나도 각 성씨별 대표와 회향에 따라 대표적 성격의 어른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제의례는 달집 태우기로 절정될 수 있다. 축제(祝祭)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놀이로 눈독을 태우고 강풍을 불지퍼 돌리고 불빛으로 달무리를 그려 그림 같은 들 풍경을 연출하여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이 되기 도 한다. (해)를 연개(連)는 방법도 일반 제의례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언장자 순으로 정하기도 하고 향민들의 책무에 따라 정하여 시행되는데 달 뜨기 직전